

‘가사노동 전담자’인 전업주부에게 취업은 대안인가 아닌가?

A Qualitative Study on the Full-Time Housewife's Employment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김 선 미*

Major in Family Welfare, K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Seon-Mi

〈Abstract〉

This ethnographic case-study explores the interpretation and behavior in job considering among full-time housewiv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eleven middle class full-time housewive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In-depth interviews based on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 Six full-time housewives tend to think their full-time housewife-lives more convenient, something unable to substitute and more profitable compared to the counter partner's lives. But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for full-time housewife life. One group has found out more positive meaning in their life but the other group has not yet and they are doubtful about real life and other opportunity. In Contrast, other five full-time housewives tend to interpret employment as a more productive source to secure family resourc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repay the loan used to buy larger apartment. And the job is considered to confirm her own individuality and the feeling for the social entity as a competent social entity. But two of them who have never been employed do not try to get a job as a new identity alternative. And the various elements like household income, job experience, health, children's age and husband's attitude to his wife's employment etc. are defined to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and the job considering behavior among full-time housewives.

▲주요어(Key Words) : 전업주부(full-time housewife), 대안으로서의 취업(employment as an alternative), 가정자원의 확보(family resource security), 사회적 존재감(feeling for the social entity)

1. 서 론

같은 전업주부도 오로지 이건 내일이다 나는 이길 밖에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일정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즐기 하는 전업주부도 있고, 아니면 포기하기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이 나는 전업주부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늘 항상 비상구가 마련된 전업주부인 경우하고 틀리다는 거죠.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이금희)

이 연구는 전업주부가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하여, 취업주부

가 절반을 넘어서고 그에 따라 가사노동만을 전담하는 소위 전업주부는 상대적 소수집단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서도 화폐소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다른 취업여성들이 가계 경제에 기여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업주부는 '취업을 못 해서 게으르게 노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고, 그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와 취업조건이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가정에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문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기혼여성의 55.2%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고 44.8%는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그 가운데 가사 및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96.9%에 해당한다(통계청, 2002).

* 주 저 자 : 김선미 (E-mail : yupy1005@hanmail.net)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자, 취업주부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정주부에 관한 연구는 퇴조하였다. 새로이 부상한 취업주부에 관한 연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와 이중부담의 문제 등(이형실, 2000, 조희금·이연숙, 1998, 장혜경·김영란, 1998)을 통해 취업주부를 주체로 삼아 온 것에 비해, 전업주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다분히 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정 내에서 주어진 역할인 자녀양육의 역할과 재무관리 등을 포함하여 가정주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관심을 둔 것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가부장적 성별분업이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자들(윤택림, 1996, 신경아, 1997)에 의해 전업주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전업주부는 가부장제하의 희생양이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획일적인 삶 곧 주체적인 행위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한 편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부각함으로써 전업주부의 삶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들이 다시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노동력의 세대적 일상적 재생산과 더불어 불충분한 복지제도의 완충역할을 하고 소비사회가 작동하게 하는 거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김선미, 1999), 지역사회의 일이나 친족 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조명하기도 했으며(문옥표, 1997) 사회적으로 보아 가족의 지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대행한다는 점(박상미·김광억, 1998)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연구는 그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온 전업주부의 주체적인 행위의 측면에 관한 연구이며, 전업주부와 취업이라는 주제를 중심적인 이슈로 다루고자 한다. 실제로 기혼 여성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번갈아 할 수 있는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가 되는 이슈에 관한 연구는 여성취업의 단절현상과 그 이유를 밝혀려는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많이 진행되어 온 데 비해, 역으로 전업주부의 취업에 관하여 연구자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아마 연구자들이 미혼 여성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까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구자들에게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하고 짐작할 수 있다²⁾. 그 동안 '전업주부탈출'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희망하는가에 관한 정보수준에서 취업이 파악되었을 뿐³⁾, 전업주부들이 삶의 대안으로서 취업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러한 평가가 현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전업주

부는 어떤 선택을 해가며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전업주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부재와 더불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둔 경우일지라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전업주부를 상당히 정체된 집단으로 여겨온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전업주부는 정체되면서 내부적인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 편으로는 전업주부들의 현재 삶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고(장혜경·김영란, 2000), 다른 한 편으로는 전업주부로서 삶에서 부족한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자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예회와 같은 여가활동 공동체, 종교 활동 등이나(이상희, 2000, 강정희, 1994) 자원봉사활동(김소영, 2001), 사회단체 참여(염영미, 1998), 백화점이나 방송국의 문화센터 등(김명혜, 2000)이 특정한 주제로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와 취업의 밀접한 관련성은 인터넷 사이트의 주부동호회에서 나누는 전업주부들의 생활소감에서나, 기혼여성의 취업과 재취업을 반영하는 M자형인 여성의 노동생애주기곡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업주부에게 취업은 '가지 않은 길' 또는 '갈 수 있는 길'이다. 전업주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변화하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끊임없이 취업 또는 재취업을 염두에 두면서 때로는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가족의 경제적 위기 시에 전업주부의 인적자원은 화폐소득을 벌어들이는데 할당되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40대주부의 취업이 급증하는 추세'는 이를 입증한다. 한 편 전업주부의 삶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사회적 존재감도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취업은 가정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감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업주부를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종교 활동 또는 사회단체 참여를 비롯한 자원 활동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직업이 중요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전업주부를 직업차원에서 이해하기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취업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전업주부가 진지하게 대안으로 고려하는 주제인 것이다.

이 연구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분업에 따른 현모양처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가정 내 역할로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각기 처한 상황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주체적인 인간상으로 전업주부를 가정한다. 전업주부의 취업에 관한 생각이나 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재한 현실에서 전업주부 당사자의 시각에 의해 '한 편으로는 억압적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주체적이기도 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⁴⁾ 그리고자 하는 탐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들의 삶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취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2) H.Z.Lopata(1980:364)는 가정주부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는 주부가 그 자체로 낮은 계급이며 교육받지 못해 사회생활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며 이웃에 대해 적대적이고 세계를 거역이 엘리트집단에 일임하려는 특성들의 복합체이며,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부들의 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고정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한다(김선미·이기영, 2002:14에서 재인용).
3) 정현희·구혜령(2001)에 따르면, 도시전업주부가 참여하기 원하는 사회활동분야로 취업>사회교육>자원 활동이 두드러졌다.

4) 윤택림(2002, 203-204)은 여성주의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의 장점이 여성-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삶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업주부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 내리는 평가 그리고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업주부가 취업을 할 것인가 가사노동을 전담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그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적 이해방법이다. 취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전업주부로 사는 이익과 비용에 비교하여 양자간에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전업주부가 처한 다양한 조건들도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조건들도 변화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선택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단순한 조건의 반영이 아니라,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성을 포함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전업주부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또 그러한 선택이 실현되는데 장애가 무엇인지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2001년 여성부가 주도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가의 정책수립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그 동안 정책입안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의 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이슈를 다루면서, 전업주부의 삶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낀 데에서 시작되었다. 전업주부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해는 당사자들의 보고에 기초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보다 복잡한 삶의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질적 연구방법’(조용환, 1999:20)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전업주부의 생애사와 현재의 나 그리고 나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선택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생각 그리고 향후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전업주부 누구나 취업을 의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아니면 장차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취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취업’이라는 이슈는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업주부 전반에 걸친 이해가 완성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형적인 전업주부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⁵⁾으로 계층을 제한하였다. 면접은 Spradley

(이희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대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사이클을 시작하고 「자료수집 및 기록→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면접 과제를 선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면접대상은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기꺼이 면접에 응하고자 하며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통상적인 전업주부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먼저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시간약속을 한 후,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하였고 녹음기로 거의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⁶⁾. 자료의 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추가적인 자료나 면접 자료의 녹취과정에서 재확인할 일이 있는 경우 전화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제보자들은 연구자가 전문적 취업자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요 주부라는 사실에서 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털어놓고 정리해보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깊이 몰두하였다. 제보자들은 어린 시절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획해왔는지 그리고 결혼을 전후로 그러한 기획이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지금 전업주부로 사는 상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보자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모양처로 살 것인지 두 가지 사이에서 생각을 굴려온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그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확실한 경우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2. 연구대상의 특징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모두 열 네 명이지만 그 가운데 세 명은 취업주부로서 전업주부의 상황을 보다 극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참고로 면접을 실시한 것이며, 분석대상인 전업주부는 모두 열 한명으로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표 1>와 같다⁷⁾. 연령은 36세에서 46세까지이며 30대 후반이 여섯 명이고 40대전반과 중반이 다섯 명이다. 면접 당시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녀가 한 명인 제보자 두 명과 자녀가 셋인 제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의 제보자들은 자녀가 모두 두 명이다. 자녀들의 나이는 3세부터 대학교 1학년생인 20세

사노동자로 이분화로.....중산층 여성들은.....‘가정 전담 주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남편을 쉬게 하고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가정 관리자인 주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은 현대의 이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6) ‘삶을 정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다’는 전업주부들은 통상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면접시간을 넘어 길게는 여섯 시간동안이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때문에 준비해간 녹음테이프가 부족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화내용을 기록하였다.

7) 제보자들의 인명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5) 조혜정(1997: 55)은 남성/사회적인 임노동자, 여성/무보수 가

<표 1> 제보자의 개인적 특성

이름	연령	학력	결혼 연령	자녀 성별 (연령, 학교)	취업경험	남편의 직업(연령)
장영임	46	대졸	25	딸(20세/ 대1) 아들(14세/ 중2)	없음	외국인회사 사장(49)
김태은	39	대학 중퇴	26	딸(12세/ 초6) 아들(10세/ 초3)	건축회사 사무직 (결혼 전)	건축회사 팀장(43)
선미라	41	대졸	27	딸(10세/초3) 딸(8세/초1)	없음	증권회사 과장(43)
진희숙	42	대졸	25	아들(16세/ 고1) 아들(14세/중2)	중등교사 (결혼 후 출산으로 그만둠)	치과의사 (42)
최희수	38	대졸	26	아들(11/ 초4) 아들(8/ 초1)	없음	전문대학교수 (42)
강정희	37	대졸	31	딸(6세/반일제 미술학원)	없음	건설회사 직원(37)
이금희	43	대졸	37	아들(6) 아들(4)	방송국작가 (2남 출산까지)	사내벤처 부장(44)
이은복	36	대졸	25	아들(10세/ 초3)	항공사 공항근무 (결혼 전 3년)	치과병원장(37)
황미경	43	고졸	27	딸(16세/ 중2) 딸(15세/ 중1) 딸(10세/ 초3)	반도체마케팅회사 7년 근무(결혼과 동시에 그만둠)	영세소기업 사장(46)
김현주	36	고졸	24	딸(10세/ 초3) 딸(12세/ 초5)	반도체회사 생산직2년/ 일반회사 총 무 2년	통신회사 차장(39)
박화영	38	대졸	26	딸(6세/ 유치원) 딸(3세)	없음	가정의학과 의사(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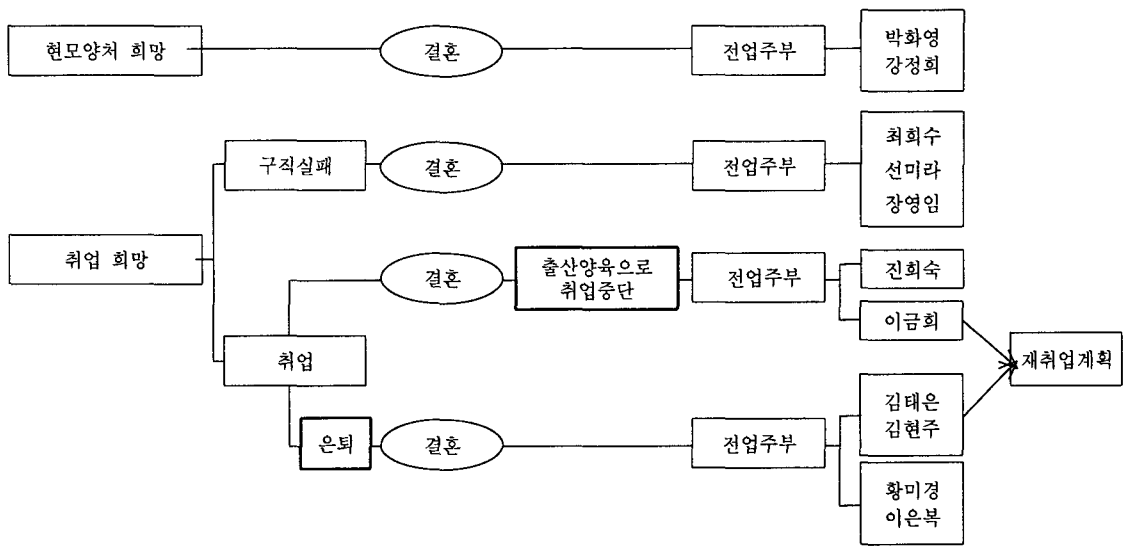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 가기 전 자녀만 가진 제보자가 강정희 씨와 이금희 씨 그리고 박화영 씨이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만 둔 제보자는 김태은 씨와 선미라 씨 그리고 최희수 씨 및 이은복 씨와 김현주 씨이다. 그 밖에 장영임씨는 대학생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진희숙 씨는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황미경 씨는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학력은 지방소재 상업고등학교 졸업이 두 명, 대학중퇴가 한 명, 지방소재 4년제 대학졸업이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이 다섯 명이다. 결혼연령은 24세부터 27세가 보편적이고 31세와 37세가 각각 한 명이다. 남편의 직업은 치과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외국인 회사 사장, 영세 소기업 사장, 건축회사 팀장,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 건설회사 직원, 통신회사 차장, 사내벤처팀 부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보자들에게 남편의 직업은 또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물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수준과 안정성과 관련된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건설회사 직원이나 팀장 그리고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는 월평균 30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져오고, 사내벤처부장은 월 500만원정도 그리고 외국인회사 사장과 소기업사장은 월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그리고 개업의는 최소 8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수입을 가져온다. 알음 알음으로 소개받을 때 제보자들의 남편의 직업과 소득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처음 연구계획 단계에서기 대한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남편의 소득은 심층적인 이야기가 가능해 진후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소개해 주는 주부들과의 경제적 성격 때문에 소득처럼 거의 묻지 않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남편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아내가 통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았는데, 월 소득 300만원인 모든 가계에서는 총수입을 아내들이 관리하지만, 월 소득이 높은 박화영 씨는 남편수입 1,000만원 가운데 약 200만원 정도를 살림하는데 사용하였고, 박현선 씨의 경우 남편 수입 2,000만원 가운데 450만원을 받아 살림비용에 충당하였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돈은 남편들이 관리하며 재테크도 남편이 주도하였다.

전업주부가 된 경로는 세 가지이다<그림 1 참조>. 첫째, 취업경험이 없이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박화영 씨와 강정희 씨, 그리고 선미라 씨와 최희수 씨 장영임 씨이다. 둘째, 결혼 전 취업했다가 결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여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김현주 씨, 황미경 씨, 김태은 씨, 이은복 씨가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직장을 떠난 이 네 제보자와 달리 진희숙 씨와 이금희 씨는 결혼 후에도 각각 교사와 방송국 작가로서 취업을 계속했지만 '출산과 양육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진희숙 씨는 남편의 강요로 교사직을 떠나 취업을 중단한 경우로 결혼생활 내내 두 자녀를 기르는 교육자로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쓴 경우이다. 이금희 씨는 자신의 존재감을 취업을 통해 확인한 경우인데, 양육자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업을 중단하고 양육을 전담해 왔다.



<그림 1> 제보자들이 전업주부가 된 경로

III. 취업에 대한 전업주부의 다양한 대응

‘나는 누구인가’를 물음으로써 전업주부의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면접과정에서, 전업주부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 않은 길’ 아니면, ‘다른 기혼여성들의 삶’, ‘지금도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취업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현재의 삶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취업은 전업주부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주제이다. 제보자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사는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떤 삶이 보다 나은가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제보자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뉘어 진다.

여러 제보자들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취업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각기 처한 현재의 환경 - 가계소득과 자산 또는 자녀의 연령이나 수, 남편의 직업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획했는가 - 전업주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며, 살아오면서 가진 기회 또는 제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면접 자료의 분석결과 열 한 명의 제보자들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볼 때,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여섯 명의 제보자는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에 따라 다시 두 부류로 나뉘었다. 그 한 가지는 전업주부로서의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회의하면서도, 취업이라는 대안이 현재의 회의적인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취업을 보다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평가를 회피하기도 한다.

한 편, 취업을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는 다섯 명의 제보자는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그에 따라 취업을 희망 한다. 그러나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도 취업을 다만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부류가 있고, 실제적인 대안으로서 취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시도하는 부류가 있다.

이제 취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제보자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 간략하게 사례를 소개하고 제보자들의 전업주부로서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와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조건 및 과거 취업과 관련된 경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업주부가 취업이라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정을 규명해보도록 하자. 취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는 넷째 부류의 논의에 지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되었다.

1. 첫째 부류 : 취업할 필요성이 없고, 그에 따라 취업을 대안으로 보지 않는 전업주부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자신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전업주부로 계속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로 박화영 씨와 황미경 씨 그리고 진희숙 씨 그리고 장영임 씨가 있다. 이 제보자들도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과 끊임없는 부담이 작용하는 삶이고, 수입을 가져다주는 일 이외에 별다른 동역을 하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 외롭고 고단한 삶이며, 개인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인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총체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취를 얻어내고 있다.

<첫째, 박화영 씨 사례>

첫째, 박화영 씨는 나중에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기르는 생활을 하는 것 곧 '현모양처'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희망하였다. 박화영 씨는 그 이유가 지방에서 서울로 초등학교 때 유학 와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심각한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화영 씨는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중매로 결혼하였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들을 다섯 살 나던 해에 잃고 지금은 두 딸을 키우고 있다. 현재 세 살 난 어린 딸과 여섯 살 난 큰 딸을 조기에 교육 하는 것이 박화영 씨의 주요 관심사이며, 유아교육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답론을 수용하고 사교육상품을 다양하게 선택·구매함으로써 '전문적 모성'을 발휘하고 있다. 청소와 빨래 같은 일상적 가사노동은 '파출부 아줌마'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박화영 씨 남편은 박화영 씨가 '악기연주를 가르치는 학원'에라도 취업하기를 바라며, 아니면 공부를 더 하더라도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구박까지' 한다고 한다. 박화영 씨의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보며, 또 자신이 돈벌이에서 잠시 벗어나 이루지 못한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아내가 대신 가계를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⁸⁾. 박화영 씨의 남편은 의학교수가 되고 싶었으나,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개업을 한 경우이다. 박화영 씨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은 취업하기 싫다고 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전업주부로 사는 데 자원이 중요하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신은 행운아라는 박화영 씨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전업주부가 힘들죠. 저는 그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으니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데 해 줄 수도 있고 문화혜택 같은 것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각박한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또 가정에 어떤 어려운 큰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수시로 그런 거를 느껴요. 아 정말 주부들 악 소리가 나겠다. 이모(가사도우미)계시다 안 계시니까 그런 거를 저도 한 번 그런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아 정말 악소리가 난다.....

또한 박화영 씨는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죠. 남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밥을 해 주고"라고 하면서, 자신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형성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버는 돈이 자신과 함께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여 따라서 자신의 삶이 생산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8) 박화영 씨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 시댁여성들이 모두 취업해 있기 때문에 박화영 씨가 전업주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한다.

<둘째, 황미경 씨 사례>

둘째, 황미경 씨는 미술을 잘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못 했다. 황미경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무직에 취업해 인정받는 편이었으며 거래처 사장인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다. 남편이 수입도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집을 비웠던 것이 좋지 않았으면서 남편은 황미경 씨가 살림만 하기를 원했다. 황미경 씨는 애 낳고 기르는 동안 취업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황미경 씨는 "지금 아주 행복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보면 모든 것이 따라 온다"고 말한다.

황미경 씨는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각각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큰 딸과 둘째 딸 그리고 피아노에 재능을 보이는 셋째 딸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황미경 씨는 손수 지은 밥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세 자녀의 학교교육보조와 예능교육의 보충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선정하고, 차를 태워다 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황미경 씨는 '항상 바쁘고 힘이 들지만 새벽기도와 등산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고, 집안일을 미루기도 하고 설거지를 좀 쌓아놓기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

연구자가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황미경 씨는 '굳이 취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 보고 싶지만 직업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몇 년간 황미경 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다각도로 주도해야 한다. 황미경 씨는 '남편수입과 비슷한 경우와 비교할 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재테크에도 성공'하여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을 비롯하여 서울근교에 넓은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있고, 임야와 오피스텔 등을 가지고 있다. 황미경 씨는 부동산에 투자해야했던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현금 자체로 두면 나는 없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그만큼 소비가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번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묶여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황미경 씨는 밀반찬용 저장식품을 많이 만들어 놓는 등 한식에 정통하며,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손수 만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셋째, 진희숙 씨 사례>

셋째, 진희숙 씨는 교사를 하다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 '당시 병원의 레지던트로서 향후 충분한 수입을 벌 것으로 전망하던 남편의 강요에 의해'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그 때 시작된 부부간 갈등 -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는" - 으로 지금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진희숙 씨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나, 전업주부의 삶 속에서 '두 자녀의 교육전문가'로 거듭났고,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인 두 아들이 모두 탁월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편한테 막 용돈 타 쓰고 하면서 되게 막 뭐랄까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 직장생활 전문직을 안 가진 것에 대해서는 큰 후회는 없어요. 대학원에 가고 했어도 도저히 못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업주부로 되고 마흔 세살에 와서 되돌아 봤을 때 나도 열심히 살았다 이 생각이 든다고요.

앞으로도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진희숙 씨는 사교육의 정보를 획득하고, 스케줄을 안내하고 '견문을 넓히게 하는 해외여행' 등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⁹⁾. 면접당시 진희숙 씨는 자는 아이를 깨워 학원에 가라고 종용하였고, 아들은 자기 싫은 표정이 역력했으며, 그런 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의무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에 의해 강요된 선택으로 취업을 중단한 진희숙 씨는 자신을 '날개 잃은 새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경력을 쌓았다면 자신에게 날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두 아이의 교육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 진희숙 씨에게 취업은 과거에 떠나온 길에 불과하다. 현재 진희숙 씨는 자율성이 결여된 삶이긴 하지만 '안정과 혜택을 주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해, 악화된 부부관계의 개선에 집중하고자 천주교의 활동에 기대고 있다.

<넷째, 장영임 씨 사례>

장영임 씨는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원하지 않게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취업에 대한 관심은 접게 되었다고 한다. 졸업 후 아버지의 병환을 돌보다 결혼하였으므로 장영임 씨는 취업경험이 없다. 장영임씨는 첫 아이는 명문대에 합격시켰으나 둘째 아이는 과외에도 가지 못할 만큼 학습태도도, 성적도 좋지 않다. 큰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학교일에도 관여하였으나 지금은 둘째 아이의 학교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장영임 씨에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 곧 장영임 씨 집의 재테크를 주도하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장영임 씨는 전업주부직의 장점을 '자율적인 시간이 많아 마

음이 편하다'는 점과 '어머니 노릇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데에서 찾는다. 또한 장영임 씨는 전업주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로 취업주부의 아이들을 집에 들여 놀게 하고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영임 씨는 애들을 키울 때 그 점을 고려해서 취업엄마의 아이들을 데려다 돌본 적이 많다고 한다. 장영임씨는 애들이 자라는 동안이나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인 지금도 '자신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요컨대, 전업주부는 마음이 편하다는 점과 모성역할수행에 유리하다는 점과 더불어 대체불가능한 일을 맡은 중요한 존재이며 또 보살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는 것이다.

장영임씨는 "돈은 당신이 벌여와 나는 그런 거 이제 못하니 까"하고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을 주지시키고, 자신은 "가정생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라면서 전업주부 삶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종교생활을 통해 얻고 있다. 교회가 제공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참여해 보살핌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소모임의 장(長)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집사'로서 교회위원회 내에서 어떤 소속감도 가지게 되었으며, 상담학이나 성경과 같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 첫 번째 부류로서, 전업주부로 정체성을 통합한 이 네 사람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하여 원초적인 긍정을 하는 것도 아니며, 취업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쉽지 않으며, 자율성이 제한되며 그에 따라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업주부로 계속 살기로 하고 취업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다.

이 부류는 취업을 대안적인 삶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보여준다. 첫째, 추가적인 소득획득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취업을 선호하지 않고 취업기회도 취업능력도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¹⁰⁾, 둘째, 자녀양육과 교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여기는 경우 셋째, 자녀교육에서의 성취감, 재테크 성공과 같이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경우, 넷째, 어릴 적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어머니의 부재를 자주 경험함으로써 본인 또는 남편이 '자녀를 위해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이 아닌 다른 대안에 접근하여 자신의 개체성을 확인하고 또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 이런 의미에서 진희숙 씨는 자신을 교육전문가로 부른다. 즉 공부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해 놀이에서부터 여행에 이르기까지 늘 사려 깊은 선택을 해왔다고 자랑한다. 진희숙 씨는 사교육의 선택에 있어서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구체적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

10) "취업능력 없다. 자신감이 없다."(장영임)는 말은 전업주부로 살면서 취업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반영하고 "취업하기 싫다"(박화영)는 말은 「고소득전문직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라는 전통적 결혼기회를 따르는 박화영 씨로서는 아내의 취업을 경제사정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돈벌이로 나서야 하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로 간주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둘째 부류 : 현재 행복하지도 않지만, 취업도 원하지 않는 전업주부

남들이 보면은 정말 부러울 게 없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고, 내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계속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상태를 웬지 만족을 못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더 있다고 해도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은복).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는 제보자는 강정희 씨와 이은복 씨가 있다. 30대 중반인 두 제보자는 자칭 '정략결혼 혹은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시도한 경우인데, 강정희 씨는 그러한 결혼을 하지 못하여 현재의 생활에 만족할 수 없고, 이은복 씨는 그러한 결혼을 했지만 그러한 결혼이 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¹¹⁾.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제보자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혼자서 외로운 것 보다 낫다. 약해서 혼자서는 못 산다.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강정희)" 또는 "누구누구의 엄마요 누구누구의 아내 다 좋지만 내가 없잖아요(이은복)"라고 평가한다. 강정희씨는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신분상승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며, 이은복 씨는 전업주부로 사는 삶에서 개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그러나 이 두 제보자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지 않으며, 외모관리와 자신을 위한 의복구매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무하고 있다. 취업주부로 사는 것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들에게 취업은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첫째, 강정희 씨 사례>

강정희 씨는 결혼은 신분상승의 수단이며, '누구누구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전문직 수험생이던 애인의 '배신'으로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 강정희씨도 동시통역사가 되기 위해 3년간 독일유학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취업준비는 다만 결혼 반대를 뿌리치기 위한 수단적 의미에 불과했다

연구자 : 독일 유학은 왜 가셨지요?
강정희 : 동시통역사가 되어 국제적인 곳도 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연구자 : 그럼 아까 말한 현모양처 꿈이 바뀐 건가요.
강정희 :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그게(동시통역사)

현실적으로 내가 000씨와 결혼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라고 생각했어요.....그 사람 어머니의 바라는 거나 나는 열쇠를 해 가지고 갈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꿈(동시통역사)이 허무해져 버린 거지

실패한 결혼기획은 강정희 씨로 하여금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한다. 강정희 씨는 결혼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고자 자신이 유학하는 동안 결혼해 버린 옛 애인-자신을 사모님으로 만들어 주었을-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한 시도를 지금도 간혹 해 보고 있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그 때마다 좌절하고, 현실적으로는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도 몰두하지 못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 강정희 씨는 자신은 '엄마노릇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남편에 대해서도 '착하긴 하지만 겨우 의식주나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업주부로 사는 것과 취업에 대한 강정희 씨의 생각은 다음 인용문을 볼 때 잘 드러난다. 요컨대, 전업주부는 편하고 시간사용에 융통성이 있고, 자신의 고용주는 자신이라는 점이다.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불만은 없어요. 이것처럼 편한게 어디 있대요? 쇼핑할 때 쇼핑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남 눈치 안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눈치 보는 거...회사원들의 그 허상 우리 남편 보면서 다 깨져버렸어.....

그러나 기혼여성이 취업하면 소득은 취업비용으로 다 나가고 게다가 가사노동도 해야 하므로 보다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강정희씨도 취업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동안 음악 듣고 운전하거나 가족과 떨어져서 가지는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회식이나 사회적 성취감 등 부수적인 이득도 알고 있다.

결혼한 여자가 직장 다는 거 안 좋아. 우리 형님이나 내 친구 특히, 그 애가 아들 둘을 낳고, 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다섯 살인데 반도체회사 다니는데 그 아이의 궁극적 목적이, 그 아이는 한 200벌어오나? 그런데 양육비며 뭐며 다 나가요, 차 유지비 뭐,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너 왜 나가니용? 너만 힘들잖아. 갔다 와서 청소하잖아 왜 나가? 그랬더니 '난 안 나가면 죽어'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노래 틀어놓고 운전하는 게 나는 이게 낙이야. 그리고 간혹 있는 회식, 이런 게 나의 낙이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성취감?

강정희 씨도 남편이 잠시 실직한 기간 동안 독일어과외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전공과목인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교사나

11) 주부의 우울증은 남편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죄책감이나(박정희·유영주,1999), 친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담(박희성,1994)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과외교사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강정희 씨에게는 소위 명문 여자대학이 결혼의 조건으로서만 의미가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을 '원하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 옷을 사는데 다 썼다'고 한다. 강정희 씨는 대학에서의 교육을 향후 직업전망과 관련시키지 않았다.

<둘째, 이은복 씨 사례>

이은복 씨는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학과 입학이 좌절되고, 순수문학을 하게 되면서 향후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이은복 씨는 결혼 전 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직원으로서 취업경험이 있지만,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해외소비문화를 접하기 쉬운 직장의 분위기로 인해 해외명품소비에 과다지출하게 되었으며, 퇴직금으로 누적된 빚을 갚기 퇴직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은복 씨는 직업정체성을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 취업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결혼을 "취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대안"으로 택하게 된다. 서울소재 명문여대출신으로 외모가 뛰어난 이은복 씨는 "의사가 될 신랑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남편 친구 부인들은 좋은 학벌에 멋진 외모는 기본이며 친정이 잘 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한다.

이은복 씨는 외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자신을 아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아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파출부를 통해 해결하는 이은복 씨는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유일한 과제이다. 이은복 씨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면 죽음'이라며 남편의 보이지 않는 감시에 순응한다. 그러나 이은복 씨는 첫 째 부류인 박희영 씨나 황미경 씨 진희숙 씨 등과 달리 자녀의 사교육의 선정과 같은 데 열중하지 않고, 아들이 교사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만난 잘 살아 보이는 엄마의 아이가 받는 대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보다 관심이 많다. 곧 자녀에 관한 관심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 것이라기보다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자신에 대한 관심의 연장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은복 씨는 식사준비에도 몰두하기 어렵다고 한다¹²⁾.

이은복 씨는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위치가 독립적인 사회적 위치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은복 씨는 남편과 아이에게 묶여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현재의 삶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사고와 같은 위기 시 자원을 확보할 방편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살고 있는게 참 좋아요. 좋은 데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있잖아요.

12) 남편은 아침식사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이며, 아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여 비판해져 미안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도 있고 제 자신이 느낄 때 저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전 애한테 치중하게 되고.....저는 남편하고 애를 떠나서는 사회적 위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혼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 가지고 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직장에 취직하기도 그렇고, 사업을 할 그런 것도 못 되는 거 같고, 그런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남편하고 애를 떠나서는 제가 없다는 게 좀

또한 치과의사인 친구의 예를 들어 취업에 대해서도 '부러움과 불쌍함'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은복 씨가 염두에 두고 비교하는 취업주부는 전문직을 가진 경우이며,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움과 사회적 위치가 그들의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은복 씨는 자신의 취업능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치과를 한다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워요, 저는. 치과의사라는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개가 불쌍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럽기도 한거.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건데, 개는 자식이나 남편한테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으로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강정희 씨는 원래 취업이 자신에게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가 아니었던데 비해 이은복 씨의 경우 대학입시에서의 좌절과 취업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취업이 중심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상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긍정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서도 취업 또한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 두 제보자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른 제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다. 이 두 제보자는 자녀양육 초기단계에서 모성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동안 자신의 개체성이 통합되지 않음에 따라 그리고 모성역할이나 아내 또는 주부의 역할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힘들다는 점 때문에 첫 째 부류와는 다르게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정희 씨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불만이라기보다는 기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불만이며, 이은복 씨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개인적 자율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강정희 씨는 직업정체성이 염두에 없으며, 이은복 씨는 전문직을 원했으나 좌절되었고 전문직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제보자들의 경우, 첫 째 부류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소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¹³⁾이나 취업을 선호하지 않다는

13) 두 제보자는 모두 한 자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은복 씨는 개업한 치과의사인 남편의 월 소득이 2,000-3,000만원에 이르

는 점(강정희 씨처럼) 또는 취업능력이 제한된다고 믿는 점(이은복 씨처럼 원하는 전문직에 대한)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점과 취업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점이 첫 째 부류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 두 사람이 전업주부로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또 긍정적인 돌파구를 찾지도 못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外傷, trauma)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정희 씨는 자살 때 '파산과 부부싸움의 연속'이라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실연(失戀)으로 인한 외상을 입고 배신감과 실패감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은복 씨는 친정의 파산 그리고 아버지의 자살로 인한 외상으로 자신도 자살하게 될까봐 염려하며 아버지를 자살에까지 몰고 간 데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집단으로부터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경험과 정체성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개인은 정체성동화¹⁴⁾를 사용하여 상황적 요구를 자인하지 않고 도피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삶을 활용하기 쉽다. 강정희 씨와 이은복 씨의 경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방어기제를 택한다. 이 두 제보자는 건강이 좋지 않으며 주로 집에 누워 지내며¹⁵⁾ 만나는 사람들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K.W.Susan(1986:23)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어는 타인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자기의심을 견뎌 낼만한 내적 힘이 없는 개인이 정체성의 주변을 요새화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3. 셋째 부류 :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을 대안으로 삼지 못하는 전업주부

이제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앞의 두 부류와 달리,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하지만 현실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취업은 언제나 희망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제보자들을 보자. 선미라 씨와 최희수 씨는 결혼 전 '취업에 대한 희망과 현모양처에 대한 희망이 혼재'한 상태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혼하였다.

며, 강정희 씨는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이 약 10억 정도라고 평가한다. 강정희 씨네는 월 소득이 300만원 정도이지만 유사 시 자산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을 늘 생각한다고 한다.

- 14) 정체성동화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정체성과 일관된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기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적인 경험의 실제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고자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Susan, K.W., 1986:17).
- 15) 이 두 제보자는 불규칙한 식사 또는 굶기, 잦은 커피음용 그리고 불면증을 공통된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다. 외모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원하는 이들에게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며 이 자원의 관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힘들고 자신의 개별적인 존재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취업이라는 유가증권'을 꺼내 보지만, 그 유효성을 입증할 길이 없고 오히려 전업주부로서의 현실만 취업했을 경우에 비해 뒤떨어지는 차선택이라고 낮게 평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고 있다¹⁶⁾.

이 두 제보자는 모두 두 명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양육과 교육 양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그 때문에 "뛰어나야 할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 자녀교육은 전적으로 이 두 제보자에게 맡겨져 있고 그에 대해 남편과 공유하는 영역이 없이 고투를 하고 있다.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잘산다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가는데, 상대적인 저소득으로 인해 이들은 빈곤감을 자주 경험 한다¹⁷⁾. 이들이 취업을 염두에 두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나 하대'에 대한 서운함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소득에 대한 필요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회의가 들 때라고 한다.

이 두 제보자는 '취업주부도 가사노동을 다 해내고 애도 잘만 키운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취업의 장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¹⁸⁾. 이들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란 '파출부나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의 캐시어(현금계산원)'로서 중산층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것이며, 파출부나 캐시어를 하는 것 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낫기 때문에 계속 집에 머물러 있을 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미라 씨는 자신은 취업운(運)이 없다고 생각하고, 최희수 씨는 고직까지 이수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철저하지 못한 의식을 탓하고 있다.

<첫째, 최희수 씨 사례>

최희수 씨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 부유해서 결혼 전 취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한다. 최희수 씨의 남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학위를 활용하여 전문대학 교수가 되었다. 남편이 야간수업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최희수 씨는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들을 돌본다. 월 300만원 조금 넘는 남편의 수입은 남편의 연구비와 용돈으로 100만원을 제외하면 생활비에도 못 미치므로, 최희수 씨가

- 16) 이재인(2004:182)은 다양한 환경적 제약으로 취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했지만, 취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간직하고 있는 전업주부에게 취업은 "시효확인해보지 않은 유가증권"과 같다고 표현한다.
- 17) 이 지역은 건물임대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모든 생활필수품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제보자는 자신들을 '○○동 거지'라고 표현하면서 소위 부급생활자인 자기 가족의 생활수준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 18) 두 번째 부류인 강정희 씨와 이은복 씨가 취업주부가 돈도 벌면서 가사노동도 해야 하므로 불쌍하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하여 취업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과 대조됨.

결혼하면서 가져 온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자 소득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에어컨이나 가구를 살 때에는 아직도 진정의 신세를 진다고 한다.

최희수 씨는 다음 둘 째 사례인 선미라 씨와는 학부형으로 만났는데, 경제적인 형편과 내뱉어야 하는 처지가 비슷하여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이 동네에서는 사업가나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 회사원과 교수 등은 아주 낮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한다. 최희수 씨의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청각장애아이다. 최희수 씨의 자산은 나중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 쓰이도록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희수 씨는 이 아이가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도록 개인 과외를 추가로 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도 추가적인 촌지를 한다고 한다. 최희수 씨는 취업에 대해 미련이 있으며, 경제적인 것과 남편으로부터 대접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나 애들을 위해서 취업이 좋은 것이고 전업주부상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자 : 다른 취업주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희수 : 취업에 미련이 있죠.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 발휘하고 대우받고 남편한테 훨씬 더 대우받는다고 생각해요..... 애들 키우는 것은 취업주부들도 다 키우잖아요. 그 애들이 뭐 잘못된다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잘 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취업주부가 나가 일할 경우 다른 어떤 부분은 감당이 되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못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았구요. 이제 제 이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취업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남편에 대해서 점점 더 국한해서 관심의 대상이 그 것 밖에 없잖아요.

연구자 :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최희수 : 저 선생님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네 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 교사자격증 대학 때 따 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교직과목 다 이수했어요. 이등 중등교사자격증. 그런데 업무가 안 나요. 강의 못 할 거 같아요. 보통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지금 직업을 취도 못할 걸요 아마.

또한 최희수 씨는 자신을 “현모양처도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남편에게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힘이 든다”고 한다. 최희수 씨는 취업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자신은 현재 통장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 위원을 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였다. 최희수 씨는 나름대로 차선의 대안을 찾은 셈이다.

참 저 하는 거 있어요. 통장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기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경비아저씨를 통해 주민들에게 민방위통지서도 전달하고 반장들에게 농수산물상품권도 전달해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의 사례를 받지요. 그리고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서 심의위원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둘째, 선미라 씨 사례 >

선미라 씨는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꺾지 못하였고, 대학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당시 영양사로서는 전문대출신이 선호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였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남편의 (한때)엄청난 수입으로 강남 000동에 입성하였으나, 증권투자 실패와 재테크의 실패로 현재는 생활비가 보다 싼 ‘분당 같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미라 씨는 어느 날 문득 울게가 ‘왜 사느냐’고 묻자 왜 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지? 지금 꿈이 있어서 꿈을 좇는 것도 아니고 신랑 꼴 보기 싫어서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차고 있는 새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이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해요. 솔직히.

그 후 선미라 씨는 의식적으로 엄마로 살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월 10만원씩 내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오전시간을 보낸다. 선미라 씨는 오후에는 자녀를 맞아 손수 간식을 해 먹이거나 직접 공부를 가르치며 사교육 스케줄을 관리한다. 선미라 씨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통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신랑한테 큰 소리 한 번 치고 싶다”고 한다.

사교육을 다른 엄마들처럼 시키기에는 돈이 모자라는데, 선미라 씨는 그러한 엄마들의 과잉교육열을 쓸 데 없는 낭비로 치부하고, 또 그런 엄마들과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방어하고 있다. 선미라 씨는 “취업을 하려고 얘기 들전에 메이크업을 배웠는데, 애 때문에 발이 묶이고 신랑이 또 지점을 옮기고 잘 돼서 이 쪽으로 이사 오고 그래서 일할 운명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선미라 씨에게 취업은 무엇보다도 소득을 벌겠다는 의미가 크다. 경제사정이 나빠진 선미라 씨는 애들이 클 때 도와주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느낀다. 심층면접이 종료된 후 얼마 있다가 선미라 씨는 초등학교들을 모아 공부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상 세 째 부류로서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는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두 제보자의 경우를 보면 우선,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적 저소득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생활비 부담으로 시달릴 때에 전업주부는 취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취업은 부부로서 비슷하게 출발해서 보다 열등해진 지위에 균형을 잡아 줄 수 있고, 또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경험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부조화되므로 새로운 대안으로서 취업을 수용(收容)하고자 한다.

그러나 초기교육단계에 들어서면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필요성과 소득을 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증가하며, 이러한 상황은 전업주부들로 하여금 더 큰 갈등상황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에 실제로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는 데에는, 취업경험이 없고 그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나 탐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취업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의심(self-doubt)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고, 남편이 제보자들의 취업능력에 대해 갖는 낮은 평가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채 전업주부로 살아가게 되는 두 제보자가 이런 상태를 돌파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최희수 씨는 통장 일과 구청의 정보심의위원 일 등 지역사회관련 봉사활동을 제한적이거나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최희수 씨로서는 취업이 아닌 이런 선택이 최선은 아니지만, 활달한 성격에도 맞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조그마한 보수도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선택'이 되었다. 대안부재에 직면하여 최희수 씨는 표준을 낮추고 적절한 대안을 수용하였다.

이와 달리 선미라 씨는 개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외모관리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 최고 대학교의 명문학과 출신' 남편의 머리를 닦은 똑똑한 자식들을 정체성의 자원으로 삼아,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교육에 성공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겠다고 생각을 정리하여 모성중심의 정체성으로 회귀하였다.

서로 친근한 사이인 이 두 제보자는 전업주부에게 주어지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저항함으로써 '그럭저럭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듯한 생활비부담이나 더 지출하고 싶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미라 씨와 최희수 씨는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는 집단을 회피집단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수용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간다.

4. 넷째 부류 : 취업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실제로 취업을 대안으로 삼는 전업주부

전업주부,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전업주부 그렇게 전업주부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겠어요. 이

제 애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은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애. 사람은 살아갈 때 시간과 돈 이런 게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엉뚱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애. 그래서 약간은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이 좀 자기한테 있어서 약간 만들어서 사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김현주).

앞에서 살펴본 여덟 명의 제보자가 현재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취업할 경우 혹은 '다른 취업주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 그리고 이금희 씨는 모두 반드시 실현하게 될 대안으로서 '자신의 취업'을 이야기 한다. 그에 따라 이들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가치를 보다 낮추어 평가하고, 전업주부로서 참가하던 종교 활동의 범위와 의미를 축소하고, 또 집을 비우더라도 집이 굴러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다.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의 자녀는 앞의 선미라 씨와 최희수 씨의 자녀보다 나이가 위어서 혼자서도 집에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두 제보자의 취업은 재취업이며, 두 사람 모두 남편은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오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이다. 그런데 두 제보자는 모두가계의 재테크를 주도하여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향후 사교육비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²⁰⁾. 한 편 이금희 씨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 두 자녀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소득획득의 부담도 크지 않지만, 서둘러 재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더 선다면 방송국작가로서의 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복귀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첫째, 김현주 씨 사례>

김현주 씨는 '가계가 넉넉하지 못했' 그 뿐 아니라 '공부를 잘 하지 못해' 상업고등학교를 간 경우라고 한다. 결혼 전에 반도체회사 생산직에 2년, 일반회사의 총무부서에 2년을 근무했는데, 김현주 씨는 남편과 결혼하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시기를 앞 당겼다. 김현주 씨는 자신들이 '정실하게 직장 일을 할 줄 밖에 모르는 남편과 뭐든 보면 척척 해 내는 아내의 결합'이라고 한다. 회사원의 월급으로 김현주 씨는 알뜰하게 살림도 하고, 재테크도 하여 자칭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확보하였다. 김현주 씨는 인테리어나 정리정돈 그리고 음식마련 등 가사노동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자평하며, 또 전세를 구할 때나 집을 구매할 때 당시의 소득수준을 넘어서서 하고 그 이후에 소비를 줄이고 강제저축을 하여 값이나감으로써 현재 "꽤 비싼 아파트"를 마련하였다고 한다²¹⁾.

19) 다음 네 번째 부류 즉 실제로 취업을 시도하는 전업주부의 남편들은 취업을 적극 옹호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지지나 찬성 반대가 아내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내의 자율성이 확장되어 있다.

20) 이들에 비하면 세 번째 부류인 최희수 씨나 선미라 씨는 상환해야 할 부채는 없다.

21) 김현주 씨는 김태은 씨와 더불어 제보자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소득과 자산수준인데도 자신의 주관적 계

그러나 두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나게 되자 김현주 씨는 재취업하여 사교육비도 벌고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채도 갚기를 원하고 있다. 김현주 씨네는 이자와 원금을 합해 월 110만원 정도-월 소득의 1/3 정도-를 갚아나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활비와 애들 교육비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 추가될 교육비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액세서리가게나 반찬가게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추가해서 더 빚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월 100만원정도 벌 수 있다면, 생산직을 포함하여 어느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김현주 씨는 취업이 자기 개발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가족-을 돕기 위해 하고 싶다고 한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벌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개발하고 이래서 한다가 보다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하고 싶지.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계획도 세워요.

취업확률을 높이기 위해 김현주 씨는 컴퓨터로 ‘엑셀’도 배우고,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의 학습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건강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둘째, 김태은 씨 사례>

김태은 씨는 대학에 가기 전에 고졸학력으로 건축사무소에 취업한 적이 있으며, 그 곳에서 현재의 남편과 사귀었다. 김태은 씨는 친정이 있는 미국에 가서 대학을 1년 다니다 ‘현재 남편이 된 애인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하여 결혼하였다.

김태은 씨 네는 김현주 씨 네와 더불어 제보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낮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외에 다른 자산도 없다. 따라서 주택구매로 인한 대출금도 갚고 자녀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취업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세계화에 따른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태은 씨는 최근 미국 친정을 자원으로 삼아 초등학교생인 두 아이의 영어연수를 했으며, 귀국 후 큰 아이는 다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고모 집에 가서 계속 어학연수 중이다. 또한 김태은 씨는 건축사인 남편이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남편이 실직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리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음식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²²⁾. 그러나 현재에도 김태은 씨는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을 살리고 집 가까이에서 자신의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김태은 씨는 영어 홈 스쿨(home

층을 “상층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현주 씨의 아파트는 면접 당시 27평형에 약 3억 5천만원정도 나간다고 하였다.
22) 남편 직장에 대한 불안은 첫 째 부류인 장영임 씨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장영임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남편이 수의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취업과도 연관짓지 않는다.

school)²³⁾교사로서 면접이 끝난 후에 파트타임으로 취업하였다.

<셋째, 이금희 씨 사례>

이금희 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게를 책임져 온 경우이다. 이금희 씨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려 국어교사가 되려던 꿈을 성차별의 벽에 부딪혀 이루지 못하고, 방송국 구성작가로 시작해서 중견작가로서 서른일곱에 결혼하였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사내 벤처 팀장이며, 제보자 남편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집 밖에서 일하고 출장도 잦다.

이금희 씨는 둘째 아이 출산 직후까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사업 실패에 연루되어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복귀의 기약 없이 취업을 중단하였다. 이금희 씨의 방송국 작가라는 직업특성은 ‘불규칙한 작업시간과 잦은 야근과 철야근무’로서 양육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금희 씨는 어린 두 자녀를 기르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비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고 대접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느꼈다. 또한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것은 전업주부에게 탈출구가 됨으로써 부부싸움의 소지도 크게 하며 또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업주부는 전업주부인데, 만약에 여차하면 탈출을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령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분명히 나한테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거를 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러면 이제 그게 계속싸움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배수진이가 없으면 그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될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비참해 지니까 그게 싸움이 된다고요. 그게, 그게 있더라도 그걸 그냥 한쪽으로 조용히 접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난 항상 나갈 수 있어, 난 항상 할 수 있어, 난 사회 나가면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항상 딱 옆구리에 차놓고 나니까 그게 항상 이제 어,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어,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대접받고 여기 있어? 난 나가면 이런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게 저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업주부들 중에서 지금 나가도 정말 할게 없는 전업주부들 말고 지금 나가도 뭔가 할 수 있는 전업주부들은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갈등이 많이 생겨요. 여기 앞집 얘기 엄마 그 시누도..

이금희 씨는 재취업만 하면 ‘월 소득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또 비자금도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현재 직장도 계속 변형하리라 전망하면서 경제적 형편을 염려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아직 자녀가 어려서 사교육비도 염두에 없다. 면접이 끝난 후 시어머니 사정

23)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여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래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됨. 일종의 상업적 조직을 의미함.

이 호전되어 이금희 씨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직장에 복귀'하였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에서 가깝고 교육환경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였다.

이상 마지막 부류를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취업을 대안으로 추구하는 세 제보자들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를 보는 독특한 시각과 구체적이고도 강한 취업동기 그리고 남편의 협조적인 태도,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주도성 그리고 취업경험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실제로 취업경험이 있는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 그리고 이금희 씨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 제보자는 전업주부로 사는 시기 중 보다 생산적인 시기가 따로 있으며, 어린 자녀를 곁에서 돌봐줘야 할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놀면 뭐해요 나가서 뭐든지 해야지(김태은)", "전업주부들요? 쓸 데 없이 시간이 많아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거나 몰려다니면서 골프를 하거나 한담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김현주)"는 표현처럼 "노는 것"비생산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이금희 씨는 전업주부가 생산적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보상만 바라는 삶'이 된다고 본다.

전업주부들이 좀 애를 키우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건설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 하면 대부분은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붓다가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의 그 공백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진짜 본인이 건설적으로 진짜 뭐를 하든 배우든지 될 하든지 그거는 했으면 좋겠어. 왜냐 하면 그거를 그냥 놔 놓고 앉아서 지나 간 과거만 자꾸 이제 막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은 나한테 뭘 안 주고 이제 아니라 그만큼 했으니까 자기도 자기한테 대한 보상받을 방법을 그 자기가 보상을 준 사람에게 받을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나는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취업은 이 후 시기에 놓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해 줄 새로운 경험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조혜정은 같은 상황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조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적 변형으로서의 현대적 남성 재배체제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대체해 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1997:57). 따라서 현대적인 핵가족적 가부장제의 이상은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로서 일반 남성들은 '억척같은 아내'상과는 거리가 먼 '귀엽고 의존적인 아내'를 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혜정에게 있어서 현 상황이 과도기적인 것은 여유 없는 가정경제를 꾸려 가는 궁극적인 책임이 아직 주부에게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한 편으로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은 두 제보자의 경우 강신주(2003)가 말하는 '적극

적으로 선택하고 직업의식이 투철한 홈메이커'이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통적인 현모양처이데올로기가 낡은 억척스런 어머니상'과 같다.

K.W.Susan(1986)의 성인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업주부는 부수입에 대한 필요가 절실할수록 자신의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을 폄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 반감제적으로 취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생산성 높은 지점을 따라 정체성을 수용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화라고도 할 수 있다.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는 전업주부로 살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이야기 하되 다른 전업주부들은 노는 사람으로 본다.

또한 자신을 언제나 놀지 않고 일하는 생산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취업관련 전략을 구사하는 이 세 제보자는 취업이 단지 희망상태에 불과한 최희수 씨가 자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그리고 선미라 씨가 자신을 취업과 운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삶을 합리화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네 번째 부류의 세 제보자에게 취업경험이 주는 효과를 보면, 이금희 씨에게 취업경험은 직업 중심적 정체성이 전업주부를 통해서 성취될 수 없음을 의미했고 복귀해야 하는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에게 취업경험은 재취업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적게 하고, 접근 가능한 취업기회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이 세 제보자 모두 취업의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고, 남편의 동의여부는 염두에 없다. 김태은 씨와 김현주 씨는 재테크를 포함하여 가계경영자세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취업역시 가정을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편과의 갈등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 이금희 씨는 남편이 아내의 취업을 적극 지지한다. 이금희 씨네는 아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듣는 시어머니를 대리양육자로 모셔온 것도 바로 남편이다.

'유능함의 다른 원천을 찾아' 취업에 나선 제보자가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정도는 서로 상이하다. 이금희 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체성 수용하되 김현주 씨와 김태은 씨는 보다 소극적으로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자기 성찰과정도 이금희 씨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당장 충족되지 않은 내재적인(intrinsic)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대안적인 일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집약적으로 정체성수용에 몰두한다는 것이 K.W.Susan의 견해인데, 그 이유는 유능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가정주부로서 삶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금희 씨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고, 가정주부역할을 여기에 연관짓지 않는다. 이금희 씨의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욕구가 바로 가정주부로서는 충족되지 않은 내재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금희 씨는 가장 집약적으로 정체성수용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수적(extrinsically) 보상을 얻기 위해 대안적 노동을 찾는데 관심을 보이는 제보자는 가사노동에는 더 이상 유능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할 잠재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수적인 이유로 보충적인 노동을 찾는 경우는 정체성수용에 대한 진지함도 덜하고, 자기성찰의 집약성도 떨어진 다. 김태은 씨와 김현주 씨의 경우 전업주부직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두 사람은 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사회적 정체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금희 씨와 달리 ‘놀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유능한 삶을 살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집안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고려하고 기대하는 소득수준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이 논문은 가사노동전담자인 전업주부가 대안으로서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취업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과정에서 도출된 새로운 연구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면접결과 전업주부제보자들은 예외 없이 기회비용으로서 취업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그러한 기회비용에 대한 평가가 현재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가 새로운 연구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전업주부는 모두 삶의 힘겨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아무런 다른 노력도 시도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업주부들은 취업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에 따라 상이한 행동을 취하였다. 현재 전업주부로 사는 상황에서 취업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과 그에 따라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하는가 하는 점에 의해, 첫째, 취업할 필요성이 없고, 그에 따라 취업이 대안이 아닌 전업주부, 둘째, 현재 행복하지도 않지만, 취업도 원하지 않는 전업주부, 셋째,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을 대안으로 삼지 못하는 전업주부, 넷째, 취업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실제로 취업을 대안으로 삼는 전업주부로 제보자들은 구별되었다.

대체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경영할 때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은 현재 삶을 보다 회의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그 경우 총체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전업주부는 자원의 확보를 시도하며, 친족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인적 자원을 소득의 획득을 위해 취업하는데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 내 역할 수행에 직접 투입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사교육비지출이 예상되지만 한 편으로는 자녀를 곁에서 직접 돌봐주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다.

연구결과,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와 취업의 필요성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전업주부에게는 취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로 인한 유능감의 입증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나 자율성 그리고 남편과의 세력균형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취업의 필요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결여되었다고 느낄 때 그러한 취업의 필요성은 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보자 가운데 취업을 대안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전업주부 가운데 비교적 자원이 풍부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남편의 소득획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믿거나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또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는 가시적인 효과-자녀교육성공 또는 제테크 성공을 통한 가정자원의 확보-를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결여감이 없고, 그에 따라서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가사전담자로서 가정경영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온 것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나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인적자원을 키워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포기한 대신, 가정에서 다른 종류의 성취감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이 불필요한 이들에게 취업은 대안의 의미를 상실한다.

한 편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편하고 외롭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만 이러한 소극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전업주부는 실제로 정신적 질병 혹은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우울함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식의 외모관리에 대한 집착은 병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업주부로 살겠다는 이 제보자들은 현재의 부정적인 삶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은 대안이 아니다.

개인으로부터 어머니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황과 더불어 정신적 외상에서 오는 자율성의 결여와 주도적인 태도의 결여는 현재의 삶에 몰두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대안의 탐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타인들과의 소통을 회복하며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혼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대하는 환상은 기대불일치에 의해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결혼 예비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의 실제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결혼에 대한 환상과 그로 인한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의미에서 취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취업을 대안으로 접근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다. 성장과정에서 학교나 가정을 통해 내면화된 현모양처이데올로기, 취업을 희망하는 고학력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제한, 결혼 후 구직을 위한 준비과정과 같은 전환기에 필요한 도움의 결여, 중산층의 결혼에 대한

환상과 전문직에 대한 환상 등은 전업주부가 실제로 현재 생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취업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정에 얽매이게 하고 좌절로 이끄는 요소이다.

취업을 대안으로 여기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는 자원 확보와 유능감의 다른 원천을 찾아내는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자긍심을 상실한 전업주부' 살아가기 쉽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업주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체험서를 쓴 강신주(2003:309)는 "전업주부직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수컷구멍을 벗삼아 살고 돈을 못 버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무서운 자긍심의 상실이라는 병"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자신의 인적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전업주부도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업을 대안으로 삼는 전업주부에게 사회적으로 놓여있는 제약 - 결혼 전 취업기회의 확보, 가사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전적인 위임-이 해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로의 마련도 중요하다. 이 연구의 대상인 중산층 전업주부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지만 이들에게 열려있는 취업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로서의 어려움이나 취업을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데 부딪히는 다양한 제약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자신의 처지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 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면, 자신의 생활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지출로부터 불합리한 구석을 찾아내고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수용 가능한 표준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지출의 수준을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정의:김창대,2004:20)을 의미하는 행위성(agency)을 전업주부들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제약들의 제거는 행위자로서 전업주부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전업주부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들과 가사 전담과 취업에 관한 의미부여방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동에 의해 전업주부내부의 다양성이 입증되었다. 그러한 다양성은 취업이 모든 기혼여성에게 절대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대안이 되는 경우에도 관련된 맥락이나 의미가 상이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제보자들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할 만한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평가로부터 노는 삶, 비생산적인 낭비하는 삶, 보상만 바라는 삶이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취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삶, 남는 것도 없는 삶이라는 평가로부터 돈도 없고 남편에게서 대접받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생산적인 삶이라는 다양한 평가를 하였다.

향후 전업주부와 취업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기초가 될 다른 변수들도 이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필요성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계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기대, 부채(負債), 남편직장의 불안정성, 시댁이나 친정의 보조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취업을 하겠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자신의 중심정체성으로서의 직업정체성, 전업주부로서의 삶에서 개체성과 유능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또한 직업 중심의 정체성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어머니를 비롯해 성장과정에서 여성의 직업이나 모성역할과 관련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들의 성차별적 견해, 그리고 남편의 모성 이데올로기, 성차별적 노동시장여건, 여성의 직업정체성의 기획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학교육, 그리고 원가족의 부, 남편의 소득, 어린 자녀의 존재, 취업경험부재 등이 있다.

질적 연구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하는 잠재력을 가진 반면, 전업주부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양적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연구가 중산층 전업주부에 국한된 연구임을 감안한다면 전업주부가 있는 다양한 계층의 경우로 연구대상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8월 13일

【참 고 문 헌】

- 강신주(2003). **페미니스트 홈메이커 Ph.D.** 서울:문예당.
- 김명혜(2000). 백화점 문화센터와 소비문화시대의 주부정체성. **한국방송학보**, 16(2), 7-40.
- 김선미(1999).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6-31.
- 김선미·이기영(2002). 인적자원활용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13-29.
- 김소영(2000). 주부의 자원 활동에 관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2004). 대상관계. **한국아동학회 2004 하계 제 1차 아동상담사 워크샵 자료집**, 17-34.
- 문옥표(1997). 도시 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서울:집문당. 189-234.
- 박상미·김광익(1998). 한국 여성에 있어서 집안일의 의미와 정체성, 1980-1990년대 한국의 여성지위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자료집**.
- 박정희·유영주(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 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박희성(1994). *기혼자녀의 친모에 대한 애착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1997). *한국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30대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염영미(1998). *여성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지역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2), 79-117.
- 윤택림(2002). *질적 연구방법과 젠더:여성주의 문화기술지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2), 201-229.
- 이상희(2000). *여가활동과 한국 중산층 전업주부의 문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재인(2004). *한국기혼여성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생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5-24.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 예방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개발원.
- 정현희·구혜령(2001). *도시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내부자료.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 조혜정(1981). *부부간의 권력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 37-47.
- 조혜정(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서울:집문당, 9-72.
- 조희금, 이연숙(1998).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39.
- Spradely J.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Holt, Reinhart & Winston, 이희봉 역(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usan K.raus Whitebourne(1986). *The Me I Know: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Springer-Verlag.